

광주·전남 학교서 독감 3620명 감염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A형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개인위생 강화 등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지난 달 중순부터 A형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초·중·고 학생 3620명이 감염되는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초등학생 1096명, 중학생 880명, 고등학생 2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감염 확진되면 집에서 격리 조치 면역력 높이고 개인위생 강화해야

지난 17일부터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날 들어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모 고등학교는 휴업을 검토했다가 수업일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으며, 이날 학교 축제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7일 7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가 이날 5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A형독감을 실시간 관찰하고 증세가 있는 학생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뒤 집에서 격리조

치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개인위생을 강화하도록 학교에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서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A형독감 환자가 초등학생 657명, 중학생 483명, 고등학생 410명이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A형독감 증세로 대부분 고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학교와 집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광주시민사회단체, 사립 유치원 감사 거부 비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진화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불리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불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 시민사회단체는 "회계비리와 폐쇄적 운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이 반성하기는 커녕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비를 삼짓 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지원금제도와 학교급식법 등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사립유치원이 독과점 형태로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교육 3법을 국회가 속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도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일부 원장들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먹이찾는 갈매기 20일 오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바닷가에서 갈매기들이 굴 캐는 어민들 주변으로 날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씨 내년 1월9일 첫 재판

법원, 공판준비기일 진행...사기 피고인 사건과 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1월9일 열린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 정제희 부장판사 심리 아래 내년 1월9일 오전 11시30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점 정리와 함께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피고인의 법정 참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 앞서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 사건과 윤 전 시장 사건을 병합했다. 전날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윤 전 광주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김 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취업 알선과 청탁 부문 역시 사실상의 특혜 제공으로 보고 이 부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대통령 생신 때 당선(윤 전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이 돼 드리겠다. (당시 유력 광주시장 후보)이용섭 씨를 지지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나에 대한 관심이나 덕담수준으로 받아들였을 뿐 선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문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춘정 기자

핀란드, 기독교전통과 비신자 권리 충돌

핀란드의 학부모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학교의 성탄축하 행사에 종교적 발언과 찬송가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해, 기독교 전통과 비신자 권리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올리카 헤이노넨 사무총장이 위원회 고위 관리가 "일부 학부모들이 종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루터파와 그리스 정교파와 분리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주제로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생명의 가치 연구"란 과목을 대신 수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거행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최신의 수정 규칙에서 학교의 축하행사는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런 전통은 핀란드 문화의 일부이다. 찬송가나 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 행사가 종교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2014년 국회 헌법위원회가 발표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종교없는 사람들"이란 이름의 한 단체는 학부모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학교에서의 종교적인 침입행위를 고발하도록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협회의 카이사 로빈슨 회장은 국영 YLE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통상 찬송가 한국으로 끝나는데 아니라 행사 전체가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루터교회는 1980년대만해도 전국민의 90%가 신자였던 것이 올해 12월에는 70%로 줄어들만큼 교세가 계속 기울어졌다(기독교 연구센터 발표). 기독교 교회는 1994년 국가로부터 단절을 선언했지만 핀란드 세무당국은 전체적인 세무 제도에 따라서 여전히 교회세를 걷어들이고 있다.

美 워싱턴주에 이례적 토네이도 강타

미 국립기상청(NWS)은 19일 현지시간 전 남 워싱턴 주 시애틀 서부 지역을 강타한 매우 희귀한 토네이도가 조사 결과 EF2급의 토네이도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토네이도로 최고 풍속이 무려 209km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청 조사 결과 일대에는 지붕이 날아간 주택들이 즐비했고 가로수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땅 위 평공였으며 차량들의 유리창까지 폭풍으로 모두 깨져 있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의 경로를 따라서 건축물 피해와 수목의 피해가 계속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사상자 발생에 대한 보고는 없다.

조사원들은 시애틀 서부 지역의 주택 수백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이곳에서는 아주 드문 강력한 토네이도가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지만 중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방구조대는 탐색견을 동원해서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마쳤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토네이도는 18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 24km 지점에 있는 포트 오자드에 떨어졌다.

"더러운 양말냄새 맡으면 폐질환 발병"

"양말 냄새 맡지 마세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신고 있던 양말의 냄새를 맡는 습관을 갖고 있던 중국 남성이 곰팡이균으로 인한 폐질환에 걸렸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지역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뉴스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서도 널리 퍼졌다.

중국 장저우에 사는 37살 남성은 언젠가부터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며 냄새를 맡는 습관이 생겼다.

'땀'이라는 성(姓)만 알려진 이 남성은 어느 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이 남성 환자를 진료한 장저우의 909병원 의사들은 폐렴으로 판단해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했다.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자 이 남성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재차 검진하면서 이 남성 이 양말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처방약을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양말 냄새를 맡았기에 낫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진은 다시 검사한 결과 환자의 폐가 심각한 곰팡이균에 감염돼 있음을 발견했다. 환자를 진료했던 장저우 909병원의 마이 주이닝 의사는 지역언론 복건일보(福建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환자가 평소 휴식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돼 곰팡이균에 쉽게 감염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